

아동의 부적응이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와 결혼생활에 미치는 영향

안 명 세(청주건강가정지원센터) · 김 영 희(충북대학교 교수)

본 연구는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세운 이론적 모델을 통하여 아동의 부적응이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와 상호작용하여 결혼생활에 미치는 영향력을 아동의 성과 연령에 따라 살펴보고 아동의 부적응이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와 결혼생활에 미치는 영향력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부모교육 프로그램이나 아동·가족 상담 현장에 실제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본 연구대상은 청주시 소재의 4개교에서 표집한 초등학교 6학년, 5학년생 총 1,350명이었다. 아동의 부적응은 Achenbach와 Edelbrock(1983)이 개발한 것을 오경자·이혜련·홍강의·하은혜가 번안하여 표준화한 K-CBCL을 사용하여 측정하였고, 양육스트레스는 Abidin(1990)이 제작한 Parenting Stress Index를 사용하여 측정하였으며, 어머니의 결혼생활은 Patterson(1974)의 Marital Behavior 척도와 Schumm등이 개발한 Kansas Marital Satisfaction으로 측정하였다. 이론적 모델은 Amos 5.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검증하였다.

본 연구는 아동의 부적응이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와 결혼생활에 미치는 경로가 성과 연령에 따라 차이가 있음을 보이고 있어 아동의 부적응이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와 결혼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성과 연령에 따라 살펴 본 것에 타당성을 입증하였다. 본 연구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결과는 자녀의 기질로 인한 스트레스가 어머니의 부부관계와 결혼만족도에 가장 큰 영향력을 갖는다는 점이다. 즉, 자녀의 기질로 인해 받는 스트레스가 어머니의 부부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결혼만족도를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어머니가 자녀를 양육하면서 경험하는 일상생활 스트레스가 어머니의 부부갈등을 증가시키는 요인임을 보여주었다. 성에 따라 분석한 결과, 남아의 외현화 부적응은 어머니의 부부관계를 감소시키는 중요한 변인이고, 여아의 내면화·외현화 부적응은 어머니의 결혼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인임을 보여주고 있다. 연령에 따라서는 5학년의 경우 어머니의 학습스트레스가 어머니의 부부관계를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고, 6학년의 경우에는 어머니의 학습스트레스가 부부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는 아동의 부적응이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와 결혼생활에 미치는 영향에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가 매개역할을 해주었고, 이러한 경로는 성과 연령에 따라 차이가 있었으며, 아동이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와 결혼생활에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밝힌 점에 의의가 있다. 이러한 결론은 아동의 부적응이 부모의 불행한 결혼생활이나 부모간의 갈등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대처방안이 될 수 있고, 이러한 아동의 부적응이 장기적으로 부모의 결혼생활에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어 이에 대한 사회적 지원과 개입이 시급함을 보여주고 있다.